111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웨슬리회심기념주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43. 즐겁게 안식할 날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은혜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은총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감에 있어 굴곡이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우리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 자비를 힘입어 주의 온전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요일 1:7 ····· 인도자

▲ 교 독 문 ····· 83. 빌립보서 4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윤성종 권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210.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다 함께

▲ 성경봉독 ····· 골 1:24-29 ····· I. 인도자
II. 김현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내가 주의 신을 떠나 ····· I. 마중물 찬양대
II.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II. 청파찬양대

말 씀 …… **온전한 사람**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454. 주와 같이 되기를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날마다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교회와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다 함 께: **아멘. 함께 일하자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무대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며 살겠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성령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믿음으로 읽는 글** ■

기도의 삶 : 고독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마 6:6)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면의 자유는 고독 속에서 자란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자신의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자신의 모든 말이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며 자신의 모든 일이 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 고독한 곳에서 더욱 깊이 인식하신 것이다.

골방이 없는 삶, 즉 조용한 중심축이 없는 삶은 금방 파괴적이 된다. 정체감 확인의 유일한 길로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매달릴 때 우리는 소유적이고 방어적이 되며, 동료 인간을 인생이라는 선물을 나눌 친구가 아니라 거리를 유지해야 할 적으로 보게 된다. … 고독 속에서 우리는 존재가 소유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인간이 행동의 결과보다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우친다.

사람들은 혼자라는 사실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인다. 혼자라는 것을 상처로, 즉 나를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요?" 하고 절규한다. 외로움은 오늘날 고통의 가장 큰 출처 중 하나다. 우리 시대의 질병이다. 하지만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외로움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가 가장 혼자이고 가장 유일무이하며 가장 자기다울 때,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울 때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하게 된다. 가장 혼자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다. 고독이란 그 사실을 점차 깨달아가는 길이다.

때로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 외로움에 부딪치는 고통을 피하려 안간힘을 다

하며 즉각적 만족과 신속한 위안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에 스스로 빠져들기도 한다. 그러나 외로움의 뼈아픈 인식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 존재의 반경 밖을 내다보라는 초청일 수 있다.

삶 속에 고독을 들여오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면서도 무척 어려운 훈련 중 하나다. 진정한 고독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으면서도 막상 그 고독한 시간과 장소로 다가가려 하면 모종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 사람도 책도 텔레비전도 전화도 없이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내적 혼돈이 펼쳐진다. 이 혼돈이 너무 산만하고 번잡스러워 다시 바빠지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내면의 회의, 불안, 두려운, 나쁜 기억, 풀리지 않은 갈등, 분노의 감정, 충동적 욕구가 그 즉시 닫히는 것은 아니다. … 모든 유혹의 손님들이 문을 두드리다 지쳐 내게서 손을 뗄 때까지 고독을 포기하지 않고 골방에 남아 있는 것, 그것이 관건이다.

침묵이란 심신의 쉼을 뜻한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쉼이다. 이것은 아주 두려운 일이다. 자신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통제력을 내놓는 것과 같고,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창의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잠잠히 있는 것이다. 침묵이란 타인과의 대화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나누는 대화마저 멈추는 시간이다. 자유로이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정체를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창의적 사역을 계속하실 수 있다.

고독의 훈련에는 따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고요한 골방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헨리 나우웬, 「기도의 삶」(복있는사람)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오월의 꽃

- 박노해

봄부터 숨 가빴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연달아 피어나던 꽃들

문득 5월이 고요하다

진달래도 목련도 벚꽃도
뚝뚝 무너져 내리고
새 꽃은 피어날 기미도 없는
오월의 침묵, 오월의 단절

저기 오신다
아찔한 몸 향기 바람에 날리며
오월의 초록 대지에
붉은 가슴으로 걸어오시는 이

장미꽃이 피어난다

그대 꽃불로 피어나려고
숨 가쁘게 피던 꽃들은 문득 숨을 죽이고
대지는 초록으로 기립하며 침묵했나 보다
피와 눈물과 푸른 가시로
오월, 붉은 장미꽃이 걸어오신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수정 권 순 김근종 정옥영 김기석 김희우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일재
김정린 김창숙 김은종 김충실 조아라 김태정 김희선 김희진 박홍재 박연주
박영희 박인혁 고숙이 배재경 이수정 서정순 서지온 설규범 손연우 신영욱
신현일 엄은경 심창현 안미숙 오미숙 오자영 유지은 윤미경 윤석영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건호a김보민 이계선 이소순 이성범 권현숙
이용석 이우상 이계월 이정우 장윤지 이정은a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치림 강상연 임 영 정경례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장현희 정연경
정영례 정영우 김지윤 정현숙 조문규 진정숙 최영민 이상미 최욱진 정수현
최윤화 최재욱 이수정 최철수 곽권희 한기택 한인철 조윤숙 한지원 현 진

감사헌금

강재원 김일재 김정린 김향자 박재영 이현정 방종미 손숙경 신기호 이계월
이우상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시경 이태석 임채진 이영희 전근우 조영순
황경순 무명5

생일감사헌금

김인석 이선화 윤미경

녹색꿈헌금

구혜린 이행진 최가윤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쉼)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

1. **웨슬리회심기념 :** 오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 28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 **임원회 :** 오늘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3. **신앙실천 :** 이 땅의 기독교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떡 대접 : 최원영 권사 (남편 김호식 집사, 아들 김완호 생일 감사)

다음 주 설교 본문	엡 4:7-10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김기석	최영민	김재흥

6월				
	1부 영접위원	박미연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정연희 이현순 김해선		
	2부 헌금위원	안홍숙 황현성		

오늘 식당 봉사	최승주 김인숙 이소선 김세영 이순정 권 산 조호진 송정근		
다음주식당봉사	김금순 서수진 이정란 이애정 김향자 남명진 배기용 조성일		
오늘설거지봉사	청파7속	**다음주설거지봉사**	2남선교회(51-60세)
커피 판매 봉사	3남선교회 (6월 4남)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